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이도학*

목 차

- | | |
|-----------------------|---------------------------|
| 1. 머리말 | 1) 반파국의 등장과 섬진강 수계
쟁탈전 |
| 2. 국호 加耶와 加耶 單一聯盟說 검증 | 2) 전북가야의 흥성과 세력권 |
| 1) 국호 ‘加耶’의 검증 | 3) 전북가야의 멸망 과정 |
| 2) 加耶 單一聯盟說의 검증 | 4. 맺음말 |
| 3) 삼한의 總王 辰王 | 참고문헌 |
| 4) 加羅의 교류 확대 | <Abstract> |
| 3. 전북가야의 대두 | |

국문초록

가야가 하나의 연맹으로 이루어졌다는 학계의 학설은 근거가 없었다. 가야 즉 가라로 일컬어진 세력은 김해와 고령 세력에 불과했다. 11세기 경에 저술된 가락국기라는 역사책에 근거한 6가야가 존재했다는 주장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가야 토기 공동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을 역사서에서는 ‘임나 여러 나라’라고 하였다. 임나라는 틀 안에 가라 등의 여러 나라가 존재했다.

임나 여러 나라의 공간적 범위는 낙동강유역과 그 서편, 그리고 남강유역을 포괄하였다. 그러한 임나여러 나라는 가야토기의 확산을 놓고 볼 때 소백산맥 서편을 넘어 전라북도 동부 지역과 전라남도 동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일본의 『신찬성씨록』에서는 이 세력의 공간적 범위가 300리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위 안에는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의 봉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단순한 일개 작은 나라 정도를 넘어 영역국가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E-mail: dhym1216@hanmail.net

봉화를 조밀하게 배치하여 침탈을 막고자 한 실체는 제철이었다. 『신찬성씨록』에서 “토지와 인민 역시 부유”하다고 한 요인은 왕성한 제철산업에 기반하였다. 이러한 ‘기문의 땅’에서 반파국은 신라와 더불어 끊임없이 다투어 전쟁을 벌였다고 한다. 말할 나위없이 이는 반파국과 신라, 두 개의 거대한 제철왕국 간의 철 산지 장악을 위한 패권 경쟁이었다. 지금의 장수 장계 분지에 소재한 반파국은 급기야 경제 물길이기도 한 섬진강 하구의 다사진 항구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백제 및 왜와 대립하였다. 결국 무력 충돌로 번진 이 전쟁에서 반파국의 존재는 『일본서기』에 존재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반파국은 궁극적으로 백제에 패하였다. 반파국의 지배층 일부는 가라로 넘어간 후 이제는 가라가 다사진 항구에 대한 지배권을 탈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반파국을 가라와 동일시하는 착오를 유발하게 하였다.

주제어 : 가야, 연맹, 가라, 임나, 반파국, 일본서기, 다사진

1. 머리말

지금까지의 가야사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加耶’ 호칭을 비롯하여 ‘가야연맹설’ 등 술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일종의 목계가 있었던 양 그대로 사용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가야사와 관련해 국호의 정확한 호칭과 사용 범위, 또 이에 대한 代案은 물론이고, 연맹설의 타당성 그리고 연맹의 前提를 검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연맹과 동맹을 구분하지 않고 관행처럼 사용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섬진강 유역에 포진한 諸國들의 공통분모에 맞는 적합한 역사적 호칭을 제시하고자 했다.

꾸준히 진척되어 온 발굴 성과에 힘입어 존재감을 새롭게 드러낸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諸國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치적 귀속성과 독자성을 함께 고찰하고자 했다. 사실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학계 통설처럼 행세한 이론이 가야 단일연맹체설이었다. 이에 따르면 가야는 낙동강과 남강을 포괄하는 연맹체였고, 맹주는 전기의 김해와 후기의 고령을 지목했다. 그러나 6세기 전반에는 ‘王’을 칭하는 세력이 고령의 加羅 외에 함안의 安羅에도 등장하였다. 게다가 蒲上八國으로 운위되는 지역 연합체의 존재도 확인된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諸國이 加羅 혹은 加耶라는 이름으로 단일 연맹체를

결성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가야연맹’이라는 호칭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연맹의 맹주권이 김해에서 고령으로 넘어간 계기를 400년 고구려군의 南征에서 찾았다. 그러나 369년에 백제 근초고왕의 經略 지역에 등장하는 諸國 가운데 加羅와 南加羅가 함께 보인다. 근초고왕의 경략 여부를 떠나 4세기 중엽에는 加羅의 중심축이 고령으로 이동했음을 암시해준다. 그리고 가야토기의 확산에 따라 전라북도 동부 지역과 전라남도 동부 구간도 가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가야 단일연맹체설에서는 호남 동부 지역, 특히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거대한 가야의 존재를 홀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가야사 연구의 현황을 짚어가면서 전북가야의 존재를 합당하게 위상 지으려고 한다.¹⁾ 주지하듯이 문명과 정치 세력권은 江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가야 諸國 가운데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를 중심한 세력권을 주목하였다. 더욱이 이곳은 고대국가의 잠재적 국력의 척도가 되는 우수한 철산지였다. 철산지와 유통망인 水系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강대한 지배자 출현의 지표인 고총고분의 존재까지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야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전북가야에 대한 정밀한 접근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新撰姓氏錄』의 300리에 이르는 ‘三巴汶地’ 즉 ‘三己汶地’를 전북가야와 결부지어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기록에서 ‘土地人民亦富饒’라고 한 실체를 전북가야의 맹주인 반파국의 강성을 가리키는 文字로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혼란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 표현인 ‘가야’나 ‘대가야’, 그리고 ‘가야토기’ 및 ‘가야계 고분’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2. 국호 加耶와 加耶 單一聯盟說의 검증

1) 국호 ‘加耶’ 검증

흔히 ‘四國時代’의 하나로 지칭되는 제3의 세력을 加耶로 일컫고 있다. 著例로 김태식의 力著인 『사국시대의 사국관계사연구』(서경문화사, 2014)를 꼽게 된다. 이러한 사국시대론은 가야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 비등할 정도

1) 가야사 연구에 대한 학설 정리는 한국고대사학회,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주류성, 2018)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여전히 전라북도 가야에 대한 연구사 접근은 부족하다.

의 국력과 정치적 위상을 지녔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국시대론은 삼국 가운데 가장 뒤쳐진 신라를 뒤쫓는 이미지를 가야에 심어준다. 이에 앞서 가야의 영역 규모나 세력권과 정치적 통합 정도에 대한 정치한 연구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²⁾

그러면 무엇 보다 소위 가야 국호 사용이 합당한 지 여부부터 검증해 본다.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섬진강유역에 산재한 諸國에 대한 범칭이자 연맹 이름으로 가야를 운위해 왔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에 소재한 세력과 연관하여 伽耶·加耶·駕洛·伽倻·加羅·加良 등 10여 種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加耶’를 공식 표기로 결정했다.³⁾ 그러나 여러 문헌을 조합하여 12세기 중엽에 편찬된 『삼국사기』의 가야 관련 기사에서의 빈도수는 당시의 호칭 빈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게다가 문헌 사료 가운데 加羅는 47회로서, 加耶 31회 보다 많다. 그럼에도 加耶는 고령과 김해를 모두 가리키므로 적합한 호칭이라는 것이다. 반면 ‘둘 중 하나만을 주로 가리키는 加羅’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일본서기』 神功 49년 조 등에 등장하는 加羅와 南加羅는, 고령과 김해 모두 加羅를 공유했다는 반증이다. 于勒이 지은 12曲의 ‘下加羅都’와 ‘上加羅都’의 ‘加羅’⁵⁾ 역시 김해와 고령을 가리킨다.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은 他稱이 아닌 自稱이 공식 호칭이어야 한다. 이 보다 더 정직한 평가가 어디 있을까? 狗邪國의 ‘구야’에서 비롯된 게 분명한 김해 지역 국호는 6)금석문에서 먼저 보인다. 400년에 고구려군의 南征 속에 등장한 ‘任那加羅’이다. 즉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의 비문에서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라고 적혀 있다. 이렇듯 5세기 금석문에 등장한 ‘加羅’는 그 이전인 4세기대에는 이미 존재하였다. 신라 통일기에 외교 문서 집필을 전담했던 强首가 밝힌 출신 ‘任那加良’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서 加羅는 타칭이고, 加良은 自稱으로 등장하지만 속단할 수는 없다. 후자는 강수가 집필한 당시의 글이나 증언을 그대로 全寫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사국시대론’과 ‘단일연맹체설’을 비롯한 가야사 연구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주보돈,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제언』 『가야사연구의 현황과 전망』(주류성, 2018), 11~38쪽에서 잘 짚었다.

3)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6~18쪽.

4)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8쪽.

5) 『三國史記』 권32, 雜誌1, 樂.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6) 金廷鶴, 『韓國上古史研究』(범우사, 1990), 210쪽.

이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 479년에 南齊로부터 ‘輔國將軍·本國王’에 책봉된 주체가 加羅王 荷知였다.⁷⁾ 여기서 加羅는 이견없이 자칭이었다. 물론 加羅王 荷知가 통치하는 구간은 김해가 아니라 고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加羅 국호의 발원지인 김해 역시 加羅로 일컬었을 가능성이 있다. 加羅는 2개 國에 해당하였다. 즉 『일본서기』 신공 49년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加羅와 南加羅가 등장한다.

a. …… 그리고 比自炆·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7國을 평정하였다. 이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의 忱彌多禮를 屠戮하여 백제에 賜하였다. ……⁸⁾

위의 인용을 보면 369년 당시 가라는 2개 국이었다. 설령 이 시점은 369년과 무관한 후대의 소급 부회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국호가 동일한 2개 국을 구분하기 위해 南加羅와 加羅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다. 『일본서기』에서는 일관되게 加羅 표기를 구사하였다. 여기서 南加羅는 다음의 인용을 놓고 볼 때 김해 지역을 가리키는 게 명확하다.

b-1. 夏 6월 壬辰 朔 甲午에 近江毛野臣은 6만의 군사를 이끌고 任那에 가서 新羅에 격파된 바 있는 南加羅·喙己吞을 復興시켜 세우고 任那에 합하고자 하였다.⁹⁾

b-2. 南加羅는 땅이 협소하여 불의의 습격에 방비할 수 없었고 의지할 바도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망하였다.¹⁰⁾

b-3. 신라에게 빼앗긴 나라인 南加羅와 喙己吞 등을 취하여 본래 대로 돌이켜 임나에 옮기고 … 천황이 조칙을 내려 남가라·喙己吞을 세우라고 권한 것은 …¹¹⁾

7) 『南齊書』 권58, 東南夷傳, 加羅國.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 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 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8) 『日本書紀』 권9, 神功 49년 조.

9) 『日本書紀』 권17, 繼體 21년 조.

10) 『日本書紀』 권19, 欽明 2년 4월 조.

11) 『日本書紀』 권19, 欽明 2년 7월 조.

b-4. 庾信의 碑에도 “軒轅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고 하였으니, 南加耶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¹²⁾

南加羅가 김해이므로 加羅는 고령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 479년에 남제로 부터 책봉된 加羅王의 加羅 역시 자칭임을 알 수 있다. 加羅는 당시의 공식적인 국호였다. 그러한 加羅는 남가라와 가라 2개의 가라로 구성되었다. 南北 2개 가라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다. 加羅 국호가 적용되는 대상은 김해와 고령 2개 국에 한정되었다. 그러면 구야국에서 출발한 加羅 국호는 어떠한 의미를 지녔을까? 이와 관련해 斯盧·斯羅·新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던 국호를 503년에 ‘新羅’로 확정하였다.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했던 사례가 참고된다. 즉 “德業이 날로 새롭고, 四方을 網羅한다”¹³⁾에서 취했다는 것이다. 加羅의 경우도 다양하게 일컬어졌겠지만 ‘보태어 망라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은 신공 49년 조에 이미 加羅가 등장하므로 369년 이전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 이미 2개의 가라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김해와 고령이 연맹을 결성할 때 加羅 국호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¹⁴⁾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에 고령과 김해의 형제 설화가 적혀 있다. 그러므로 양자 간의 연맹으로 해석해 왔던 지견은¹⁵⁾ 지극히 온당하다. 또 연맹 결성 설화를 분명히 갖추었던 것이다.

그런데 加羅는 가라인들 스스로 표방한 국호였다. 반면 『삼국사기』 등에 보이는 加耶나 加良·伽耶·伽倻 혹은 駕洛은 어디까지나 加羅를 멸망시킨 신라인들의 표기에 불과했다. 특히 『삼국사기』에서 그 용례가 가장 많은 국호가 ‘加耶’였다. 그런데 ‘耶’는 의문을 나타내는 助辭였다. 그런 만큼 自稱인 加羅와는 달리 他稱인 ‘加耶’는 ‘더했다고?’하며 비꼬는 의미이다.¹⁶⁾ 이 점을 유념하면서 온당한 표기를 사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加羅는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섬진강유역 諸國 전체를 포괄하는 연맹 이름으로는 부적합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시급해진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사를 본다.

12) 『三國史記』 권41, 金庾信傳.

13) 『三國史記』 권4, 지증 마립간 4년 조. “德業日新 網羅四方”

14) 李道學, 『加羅聯盟과 高句麗』 『제9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광개토대왕』(김해시, 2003);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서경문화사, 2006), 436~442쪽.

15)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09쪽.

16) 李道學, 『任那諸國內 加羅聯盟의 勢力 變遷과 對外關係』 『白山學報』(86, 2010), 91~118쪽.

c.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滄國·稔禮國 합해서 10國이다.¹⁷⁾

위의 인용에 따르면 任那 안에 加羅와 安羅를 비롯한 諸國들이 소개하였다. 任那라는 거대한 연합체 안에 加羅 등이 속해 있었다. 『日本書紀』 註釋書인 『釋日本紀』에서 “哆利國·伴跛國: 兩國은 任那國의 別種이다”¹⁸⁾고 했다. 역시 任那 안에 諸國들이 소개한 상황을 알려준다. 이를 일러 동일한 『일본서기』에서 ‘任那諸國’¹⁹⁾이라고 했다. 唐代에 편찬된 『通典』에서도 “(新羅) … 遂致强盛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²⁰⁾라고 하여 보인다. 물론 여기서는 가라와 임나 제국은 별개 세력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欽明 23년 조에서 보듯이 임나제국은 ‘(南北)加羅聯盟’이 해체된 후에는 이들 세력까지 포괄한 總稱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 게다가 『광개토왕릉비문』과 강수의 출신지 관련해 ‘任那加羅’와 ‘任那加良’이 각각 등장한다. 그런 만큼 ‘任那 속의 加羅’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경대사비문』에서 남가라의 왕실을 ‘任那王族’이라고 했다. 任那와 加羅를 동일 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文字이다. 그렇지만 兩者를 각각 달리 볼 수도 있다.

倭 5왕의 상표를 비롯하여 唐代에 저술된 『한원』에서도 “今訊新羅耆老云 加羅·任那昔爲新羅所滅”²¹⁾라고 했듯이 加羅와 任那를 분리했다. 이는 『通典』에서 “(新羅) … 遂致强盛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라고 한 기술과 동일하다. 이로 볼 때 가라는 임나에서 분리되어 독자 성장을 거듭했지만, 남가라 멸망 이후 다시금 任那의 범주에 들어가 自衛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섬진강유역을 포괄하는 정치체의 범칭은 任那였다. 임나연맹 여부는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연맹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史書에 적혀 있듯이 ‘任那諸國’이라는 호칭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17) 『日本書紀』 권19, 欽明 23년 조.

18) 『釋日本紀』 권13, 述義9, 第17, 繼體. “哆利國·伴跛國: 兩國者 任那國之別種也”

19) 『日本書紀』 권19, 欽明 15년 12월 조.

20) 『通典』 권185, 邊防1, 新羅.

21) 여기서 加羅와 任那是 별개의 세력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왜왕의 소위 관할권과 관련하여 숫자를 맞추기 위해 ‘任那加羅’를 ‘任那’와 ‘加羅’ 2개 국으로 구분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2) 加耶 單一聯盟說의 검증

『駕洛國記』와 『本朝史略』에 등장하는 6가야는 어떤 배경에서 태동했을까? 『제왕운기』를 보면 “먼저 扶餘와 沸流를 들었고, 다음으로는 尸羅와 高禮·南北沃沮·穢·貊·膺이 있었다. 이들 여러 임금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묻는다면 世系는 역시 단군에서부터 이어져 왔으니...”라고 했다. 여기서 단군의 후손으로 부여와 신라(尸羅)·고구려(高禮)·백제(膺)를 포함해 옥저까지 망라했다. 문제는 加羅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제왕운기』의 이러한 서술은 『구삼국사』를 저본으로 한 것이다. 『구삼국사』에서는 단군을 정점으로 하는 擬制的 대가족관계가 설정되었다. 고려 조정이 후삼국 통일 직후에 분열을 상쇄하고 동질성 확보로써 대통합을 이루려는 정치적 목적에서였다.²²⁾ 그러한 의제적 대가족관계 설정이라는 ‘역사 만들기’에 加羅는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다.²³⁾ 이 사실을 포착한 이가 김해 지역에 부임한 고려 문종대인 太康 연간(1075~1084)에 『가락국기』를 저술한 金官知州事 文人이었다. 『본조사략』의 저자 역시 加羅의 존재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6가야 연맹설화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라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켜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한국사 속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실제 『가락국기』에서는 가라의 영역을 “동은 黃山江, 서남은 瀋海, 서북은 地理山, 동북은 伽耶山, 남은 나라의 끝이었다”²⁴⁾고 했다. 이와 연계하여 독자적인 6가야 건국설화를 탄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동은 黃山江, 서남은 瀋海, 서북은 地理山, 동북은 伽耶山, 남은 나라의 끝이었다”는 기사를 다시금 음미하면서 가야 사방 영역의 기준점을 찾아 본다. 김해 금관국을 기준으로 할 때 가야산은 서북이다. 고려 대가야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야산은 정북 방향에 속한다. 연맹의 前後를 지배했다고 인식한 김해와 고려 모두 가야산의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 반면 雲봉~함양~산청 일대는 『가락국기』에서 말한 사방 가

22) 李道學, 『檀君 國祖 意識과 境域 認識의 變遷 --『舊三國史』와 관련하여--』 『韓國思想史學』 40(2012), 406쪽.

23)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삼국사』 찬자가 加羅 2개 國을 동예나 옥저보다도 비중을 작게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보다는 金州로 불리었던 김해의 소울희 등 호족세력은 후백제와 제휴하여 고려에 맞설 수 있었다. 실제 후백제는 김해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김해 세력과 후백제의 유착을 탐탁찮게 여겼기에 고려 전기의 『구삼국사』 撰者는 남가라의 존재를 지웠는지 모르겠다.

24) 『三國遺事』 권2, 紀異, 駕洛國記.

야 영역의 중심에 해당한다. 특히 금관가야의 마지막왕인 구형왕의 능과 수정궁이 전하는 산청군 금서면은 그 중심에 걸맞다. 『가락국기』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과 관련한 山淸을 기준으로 사방 영역을 설정한 것 같다.²⁵⁾

가야의 서쪽 경계라는 지리산 근처에 仇衡王이 묻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금관가야의 영향력이 멸망할 때까지도 『가락국기』에서 설정한대로 가야연맹 전체에 미쳤고 줄곧 맹주로 군림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말할 것도 없이 옛 금관가야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과시하려는 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즉 8세기 후반 이후 몰락해가고 있던 금관가야계 귀족들은 해공왕 피살로 인해 신라 왕실과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했던 것 같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9세기경 어느 때인가 山淸에 王山寺가 창건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仇衡王 관련 유품도 이곳에 함께 보관되었을 수 있다. 이에 걸맞게 仇衡王의 수정궁 隱居나 김서현과 김유신 관련 이야기도 후대에 와서 보태졌을 것이다. 요컨대 王山寺의 창건은 옛 금관가야의 영예와 권위를 후광으로 자체 세력을 보존하면서 再起하려는 新金氏 귀족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 때 仇衡王을 追念하기 위한 방단형 적석탑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이 후 어느 때 仇衡王陵으로 그 전승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는 塔 자체가 墳墓의 성격을 지닌 것과도 관련 있겠지만, 王山寺가 구형왕을 위한 願刹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그 附會에 一助했으리라고 믿어진다.²⁶⁾

가야의 사방 영역관은 『가락국기』가 편찬되는 11세기대의 산청 지역을 軸으로 하는 가락국 인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가락국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 관련 유구 등이 이 무렵에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왕산사의 구형왕 유구 등이 조선 후기에 갑자기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따르기 어려워진다.

가야는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섬진강유역을 포괄하는 정치체의 범칭이 될 수 없었다. 이와 연동하여 소위 가야연맹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야연맹설은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인해 김해가 타격을 입어 주도권이 내륙의 고령 대가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가야에 의한 단일 연맹체설이 과연 타당한 지 여부를 살펴 보도록 한다. 많은 근거를 제시할 것도 없다. 다음

25) 李道學,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2020.6.26), 9쪽.

26) 李道學, 『山淸의 傳仇衡王陵에 관한 一考察』, 『郷土文化』5(嶺南大學校 郷土文化研究會, 1990); 『新羅·加羅史研究』(서경문화사, 2017), 334~335쪽.

의 기사 한 곳을 제시함으로써도 가야연맹설의 불가함을 목도할 수 있다.

d.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加羅를 침략했다. 加羅 王子가 와서 구원을 청했다.²⁷⁾

위의 전쟁 기사를 통해 加羅와 포상8국은 서로 별개의 세력임을 알 수 있다. 加羅聯盟 안에 포상팔국이 소재한 것은 아니었다. 포상팔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古史浦國(古自國)·骨浦國·柒浦國·保羅國·史勿國 등이었다.²⁸⁾ 이들은 경상남도 고성과 마산·칠원·사천을 포함하여 해안 포구에 소재한 교역 연합체였다. 포상팔국은 加羅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 세력이었다. 물론 포상8국이 가라를 침공한 시점이 중요하다.²⁹⁾ 그러나 분명한 것은 古史浦國이 후대에 ‘소가야’로 불린 것 외에는 나머지 포상7국은 가야 호칭과는 관련도 없어 보인다. 이로써도 가라는 연맹 전체의 이름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가야연맹설의 근거가 되었던 『가락국기』와 『본조사략』에 적혀 있는 加耶를 접미어로 하는 세력의 성격은 무엇일까? 6가야 시조 탄생설화가 보이므로 가야연맹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다. 다음의 인용을 살펴본다.

e. 五伽耶[『駕洛記』를 살펴보면 贊에 이르기를 “하나의 자주색 끈이 드리워져 여섯 개의 둥근 알이 내려 왔다. 다섯 개는 각 톨으로 돌아가고, 한 개는 이 城에 있다”고 한 즉, 한 개가 首露王이 되고 나머지 다섯 개는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金官이 다섯의 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本朝史略』에서 金官까지 그 數에 넣고 昌寧을 더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阿羅[혹은 耶]伽耶[지금 咸安]·古寧伽耶[지금 咸寧]·大伽耶[지금 高靈]·星山伽耶[지금 京山 혹은 碧珍]·小伽耶[지금 固城]라고도 한다. 또 『本조사략』에는 태조 天福 5년 庚子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으니, 첫째는 金官[金海府가 되었다]이다. 둘째는 高靈[加利縣이 되었다]이다. 셋째는 非火[지금 창녕이니, 아마 高靈의 그릇된 것인 듯

27) 『三國史記』 권2, 나해 이사금 14년 조.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28) 『三國史記』 권48, 勿稽子傳.

『三國遺事』 권5, 避隱, 勿稽子.

29)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3세기 초반~6세기 후반까지로 설정하는 등 시간 폭이 다양하다(백승옥,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주류성, 2011), 119~120쪽.

하다]이다. 나머지 둘은 아라와 星山[앞에서와 같다. 星山은 혹은 碧珍伽倻라고도 한다]이라고 했다.³⁰⁾

『가락국기』와 『본조사략』에 5가야·6가야가 수록되어 있다. 후자에 따르면 940년인 천북 5년 경자에 5가야의 존재가 등장한다. 가야를 칭한 國은 아라가야·고령가야·대가야·성산가야·소가야·금관가야의 6가야로 정리된다. 이병도는 함녕 즉 경상북도 함창에 소재했다는 古寧伽耶의 위치를 晉州로 비정했다. 즉 “나로서는 晉州의 古名인 ‘居列’과 古寧이 音近할뿐더러, 지리적 중요성(雄州巨牧)에 비추어 보아 진주에 비정하고 싶다”³¹⁾고 했다. 그러나 居列은 居昌의 고지명일 뿐 진주와는 관련이 없다. 더욱이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고령군은 본래 고령가야국인데, 신라가 이곳을 취하여 고동람군을 삼았다 [혹은 고릉현이라고도 한다]”³²⁾고 했다. 여기서 고령군은 고려 때 咸寧郡이고, 지금은 상주시 함창읍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모두 함창을 고령가야 故地로 적어놓았다. 따라서 이병도의 진주=고령가야설은 터무니 없음을 알 수 있다.³³⁾ 그리고 安羅에 대해서는 “法興王이 大兵으로 阿尸良國을 멸망시켰다 [혹은 阿那伽耶라고 한다]. 그 땅을 郡으로 삼았다”³⁴⁾고 했다. 여기서 安羅를 阿那伽耶로 일컬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삼국사기』 찬자가 선행 기록인 『가락국기』를 참조한 사실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상기한 5가야·6가야는 당시의 국호가 아니었다. 당시의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하는 『일본서기』나 『양직공도』 등 어떤 문헌이나 금석문에도 ‘△△伽耶’라고 하여 伽耶를 접미어로 한 5가야나 6가야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실재는 이들 지역에 5가야나 6가야를 넘어 그 보다 훨씬 많은 소국들이 병존한 양상이었다. 그랬기에 ‘△△伽耶’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등장한 호족들이 자신들이 신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고 한다.³⁵⁾ 백제와 고구려가 재건되었고, 후백

30) 『三國遺事』 권2, 紀異, 五伽耶 條.

31) 李丙燾, 『近肖古王 拓境考』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313쪽.

32) 『三國史記』 권34, 地理1, 新羅, 古寧郡 “古寧郡 本古寧伽耶國 新羅取之爲古冬攬郡[一云古陵縣]”

33) 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연혁을 “가야시대에 고령가야의 고도로,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거열성으로...진주목이 되었다”고 告示했다. 반면 상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또한 B.C 1세기경 함창 지역에 고령가야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34)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咸安郡. “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那伽耶) 以其地爲郡”

35) 金泰植, 『加耶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민음사, 1990), 55~56쪽.

제와 고려가 영남으로 진출하는 현실이었다. 영남의 남부 지역 호족들은 신라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김해를 중심으로 호족 연합체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하려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911년 경 이후 知進禮城諸軍事를 자칭한 김해 지역 호족 蘇律熙가 5가야나 6가야를 공유한 지역의 호족들과 연계한 근거가 보여야 한다.³⁶⁾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진헌의 東進으로 적어도 922년 이전에 진례성은 후백제로 넘어갔다.³⁷⁾

이렇듯 ‘△△伽耶’의 태동 배경과 시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락국기』의 史觀에 근거하여 가야 단일연맹체설이 정설로 坐定하였다. 설령 ‘△△伽耶’ 연합체가 신라 말에 성립되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것이 4~6세기대 실상과 결부 지을 자료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소위 가야 연맹의 맹주를 대가야로 표기하였다. 고려 세력이 강성했을 때 영향력이 미쳤던 諸國들을 時空을 망라하여 대가야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닐까 싶다. 백보양보하더라도 ‘△△伽耶’는 대가야 말기의 상황을 반영한 다음 우륵의 12곡에 담긴 國名과도 차이가 난다.

f. 우륵이 12곡을 만들었는데, 첫째 下加羅都, 둘째 上加羅都, 셋째 寶伎, 넷째 達已, 다섯째 思勿, 여섯째 勿慧, 일곱째 下音物, 여덟째 師子伎, 아홉째 居烈, 열째 沙八兮, 열한째 爾赦, 열두째 上音物이라고 했다.³⁸⁾

위의 인용에서 셋째 寶伎와 여덟째 師子伎는 지명과 무관하지만 나머지 10개는 지명이다. 下加羅都는 김해, 上加羅都는 고려, 思勿은 泗川, 居烈은 居昌이 분명하다. 그리고 上音物과 下音物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上己汶과 下己汶에 대응한다.³⁹⁾ 그리고 沙八兮와 勿慧, 爾赦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12곡의 국명은 ‘△△伽耶’에 속한 창녕·고성·성주·함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가야 연맹설이나 『가락국기』의 ‘△△伽耶’에 근거한 6가야 연맹설은 실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36) 李道學,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2020.6.26), 9쪽.

37) 李道學, 『후백제 진헌대왕』(주류성, 2015), 309쪽.

38) 『三國史記』 권32, 雜志1, 樂.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音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音物”

39)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293쪽을 열람하라.

설령 가라 연맹을 김해와 고령에서 출발하여 ‘가야’로 표기된 세력 정도까지로 지목하더라도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섬진강유역을 포괄하는 단일 연맹이 될 수 없다. 대신 水路나 浦口를 중심한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諸國 간의 동맹체는 다수 존재했을 것이다. 변한에서만 弁辰彌離彌凍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이라고 하듯이 ‘彌凍’ 즉 ‘물뚝’인⁴⁰⁾ 農水路 공동체, 蒲上^{8國}처럼 浦口를 거점으로 한 海上交易 연합체 등이 보인다. 이들 諸國 간에는 혜택을 공유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6가야의 경우는 실체나 성격이 분명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의 발굴 결과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에서 5세기 후반~6세기 초 비화가야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出字形 금동관을 비롯한 장신구 일체는 경주 황남동 신라 귀족 여성 무덤과 판박이 구성으로 드러났다. 결국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주체는 신라임이 확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⁴¹⁾ 실제 창녕으로 비정하는데 이견이 없는 『삼국지』 동이전의 不斯國은 변한이 아니라 ‘진한 不斯國’으로 밝혀졌다.⁴²⁾ 이처럼 6가야는 시조의 탄생 설화만 전할 뿐 실체가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다.⁴³⁾ 따라서 『가락국기』 찬자의 사관에서 비롯된 ‘△△伽耶’ 式의 가야단일연맹체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인 ‘△△伽耶’는 기실 加羅를 정치적 공동분모로 한 연맹체는 아니었다.⁴⁴⁾ 여러 정치 집단 간의 우열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평적 개념의 연맹은 상정하기 힘들다. 6가야 시조설화에 보이는 형제 관계는 동질성과 정치적 대등성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변한의 경우는 諸國 간의 규모나 인구, 물산의 집중도 등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해를 공유하는 몇몇 제국 간의 연맹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변한 제국 전체를 하나의 연맹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해진다. 사실 5세기 후반 가라 왕과 諸國 阜岐들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였기 때문이다.⁴⁵⁾

여기서 聯盟과 同盟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점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동맹(alliance)의 사전적 의미는 “두 나라 이상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 결합” 혹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40) 金哲堧, 『韓國古代國家發達史』(한국일보사, 1975), 55쪽.

41) 허윤희, 『가야 무덤이라면서... 유물은 왜 신라인가요』 『가야 무덤이라는 창녕 고분, 쏟아져 나온 건 신라 장신구』(『조선일보』 2020.10.29).

42) 李道學,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전라북도·호남고고학회, 2020, 11.20), 114쪽.

43) 李道學, 『분석 고대한국사』(학연문화사, 2019), 499쪽.

44) 이에 대한 학설사적인 정리는 白承玉, 『加耶各國史研究』(혜안, 2003), 15~35쪽에 보인다.

45) 金世基, 『대가야고대국가론』 『가야사연구의 현황과 전망』(주류성, 2018), 139쪽.

국가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한 약속.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일”이다. 포상8국은 공동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행동을 공유하는 전형적인 동맹체였다. 반면 연맹체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국가 따위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돕고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여 맺음. 또는 그 조직체”이다. 얼핏 보면 동맹이나 연맹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친다. 그러나 연맹은 분명한 예시가 있다. 春秋時代 列國의 경우 “국가의 大事는 祀와 戎에 있다”⁴⁶⁾고 하여 군사와 제사를 집단적 과제로 공유하는 이른바 戎祀共同體였다. 三韓의 경우 그 풍속은 상호 유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의의 경우에는 “鬼神을 제사지내는데 차이가 있다”⁴⁷⁾고 했다. 삼한의 마한과 진한 및 변한은 군사적 의무와 祭祀를 공유하는 戎祀 공동체였다.⁴⁸⁾ 그리스의 폴리스들도 종교로 결속된 공동체였던 것이다.⁴⁹⁾ 그리스 폴리스들은 페르시아의 침략에 공동 대응하는 군사 동맹체였다. 그리스 폴리스들은 유사 공동체였으니 연맹이 맞다.

3) 삼한의 總王 辰王

삼한의 위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지목할 수 있다. 즉 마한은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일부 그리고 전라남·북도에, 진한은 대략 낙동강 동쪽에, 변한은 낙동강 서쪽에 소재하였다. 이들은 제사와 군사적 의무를 공유하는 戎祀 공동체였던 것이다. 즉 맹주국을 軸으로 특정한 시기에 거대한 제천 행사를 집전하면서 동일한 神의 자손이라는 연대 의식과 전쟁을 함께 치르는 3개의 연맹체였다. 여기서 ‘연맹’은 사회발전 단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諸國간 우열의 차이가 인정되는 ‘결속’의 의미로서 사용했다.⁵⁰⁾

3개의 연맹 가운데 3세기 단계에서 마한은 대략 54개 국,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삼국지』 한 조에 따르면 “弁·辰韓 합하여 24국이다. 대국은 4~5천 家, 소국은 6~7백 家인데, 총 4~5만 戶이다. 그 12국은 辰王에 속하였다. 진왕은 항상 마한인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 대대로 서로 이었다. 진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왕이 되지 못하였다”⁵¹⁾고 했다. 즉 변한과

46) 『春秋左傳』 권11, 成公 13년 조. “國之大事 在祀與戎”

47) 『三國志』 권30, 東夷傳, 韓 條. “祠祭鬼神有異”

48) 李道學, 『백제고대국가연구』(一志社, 1995), 208쪽.

49) 빅터 에렌버그 著·김진경 譯, 『그리스국가』(민음사, 1991), 160~165쪽.

50) 연맹의 개념 정의는 신가영, 『가야사 연구와 ‘연맹’이라는 용어』 『學林』 40(2017), 57~85쪽에서 치밀하게 검토되었다.

진한의 24국 가운데 12국이 진왕에 속한다는 것이다. 진왕은 마한인이라고 했다. 마치 마한 출신의 진왕이 이곳에 파견되어 통치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랬기에 진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료 자체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편찬한 『삼국지』 동이전, 그것도 한 조의 마한 항과 변진 항의 진왕이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同名異人이라면 반드시 필자인 陳壽가 단서를 달아놓게 마련이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 사안을 검증해 본다. 『삼국지』에 덧붙여진 『魏略』에 따르면 “분명히 그들(진한)은 흘러서 이주해온 사람들인 까닭에, 마한의 다스림을 받았다(魏略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고 했다. 마한이 진한을 통제하고 있음과 더불어, 마한에는 “진왕이 목지국을 다스린다(辰王治目支國)”고 하였다. 진한까지 통제하고 있는 마한 맹주 진왕에 대해, 동일한 『삼국지』 韓 條에서 “진왕은 목지국을 다스린다. (진왕에게는) 臣智 혹은 臣雲遣支報安邪 蹶支漬臣離兒 不例狗邪秦支廉이라는 특출나게 부르는 호칭을 더했다”⁵²⁾고 했다. 진왕의 優呼에 보이는 安邪와 狗邪는 변한의 國名이다. 그리고 진한의 성립 배경을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馬韓割其東界地與之)”고 했다. 弁·辰韓 가운데 ‘그 12국은 진왕에 속하였다’고 한데다가 진왕의 優呼에 변한의 安邪와 狗邪가 보인다. 따라서 진왕의 영향력은 진한은 물론이고 변한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기사를 계승한 『후한서』에서는 “마한이 가장 컸다. 그 종족을 함께 세워 (마한 사람을 共立하여) 辰王으로 삼았다. 목지국에 도읍하였으며, 죄다 삼한의 땅에서 왕을 했다. 그 諸國 왕들의 선조는 모두 마한 종족이었다”⁵³⁾고 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도 “瓠公을 보내 마한에 朝聘하자,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기를, ‘진한과 변한 두 韓은 우리의 屬國인데, 근년에 와서 職貢을 보내지 않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禮가 이와 같아서야 되겠는가!(赫거세 38년 조)”고 했다. 한진서도 “마한이 당시 삼한의 패권을 쥐고 있었음을 이것으로 징험할 수 있다”⁵⁴⁾고 하였다.

51) 『三國志』 권30, 東夷傳, 韓 條, 弁辰 項.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52) 『三國志』 권30, 東夷傳, 韓 條, 馬韓 項. “辰王治目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 蹶支漬臣離兒 不例狗邪秦支廉之號”

53) 『後漢書』 권85, 東夷傳, 韓 條, 馬韓 項.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

54) 『海東釋史續集』 제3권, 地理考3, 三韓, 疆域總論.

마한의 진왕은 진한은 물론이고 변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후한서』에서 진왕을 삼한의 總王으로 기재한 기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따라서 동이전의 진왕은 한 명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 삼한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대한 위상의 진왕은 그에 걸맞는 官府를 갖추었던 것 같다. 진왕은 예하에 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과 같은 중국식 관호를 지니고 대방군과 연계된 群小 세력들을 외형상 거느리고 있었다.

결국 마한·진한·변한이라는 3개의 연맹 안에는 지리적 요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낙동강 하류와 남해안에 소재하여 水路와 海路를 장악한 蒲上八國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수리권을 둘러싸고 최초의 정치적 단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⁵⁵⁾ 가령 여러 곳에서 노동력을 징발해 구축한 관개시설로 인해 蒙利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상정된다. 즉 『삼국지』 한조에 수록된 弁辰彌離彌凍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彌凍國’의 ‘彌凍’은 ‘물뚝’을 가리킨다고 한다. 즉 ‘水堤’인 것이다. 義林池로 유명한 堤川의 삼국시대 지명은 ‘奈吐’였다. 이는 ‘내뚝’의音を 표기한 것이다. ‘내뚝’을 漢譯하면 ‘川堤’가 된다. 현재의 堤川 지명은 이렇게 유래하였다. 金堤라는 현재 지명도 碧骨堤에서 유래했다.⁵⁶⁾

朴堤上의 이름을 『일본서기』에서는 毛麻利叱智라고 했다. 여기서 ‘叱智’는 존칭어미에 불과하다. 그리고 毛麻利는 『삼국사기』에서 ‘毛末’과 동일하다. 그 의미는 ‘마리’ 즉 ‘말’은 우두머리 ‘上’의 뜻이다. ‘모’는 ‘못’ 즉 물을 채운 둑인 ‘堤’로 번역된다. 모마리 즉 못마리인 堤上은 못뚝의 수리권을 장악한 지방 수장의 別號로 보였다. 공주 수촌리 고분에서 확인되듯이 지방 수장의 분묘에 살포가 부장된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살포는 논의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에 쓰는 네모진 삽이다. 살포는 수리권의 장악과 관련한 지방 수장을 상징했음을 알 수 있다.⁵⁷⁾

그러면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섬진강유역의 諸國들은 변한 이후 연맹체에 속하였을까? 이와 관련해 3세기 중엽 이후 대방군과의 전쟁에서 패한 마한 목지국 진왕의 통치력은 붕괴되었다. 이에 연동한 삼한 전체의 통합력은 급격히 느슨해졌다. 진왕권의 통제력 붕괴는 마한과 진한 연맹의 해체 요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외적 견제와 위협 요인이었던 대방군이 314년에 축출되었다. 이에 따라 삼한 諸國은 힘의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새로

55) 井上秀雄, 『古代朝鮮』(日本放送出版協會, 1972), 59쪽.

56) 李道學, 『분석 고대한국사』(학연문화사, 2019), 319쪽.

57) 李道學, 『분석 고대한국사』(학연문화사, 2019), 320쪽.

은 질서 설정을 위한 통합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유이민 파동과 외부 세력의 유입은 기존 질서의 붕괴를 가속시켰다. 그 결과 마한은 백제로 통합되었고, 진한은 신라로 통합되었다. 그럼에도 변한만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그 요인을 倭 세력의 침투와 견제, 고만 고만한 정치 세력 간의 공존 상태의 장기화, 뚜렷한 强者의 不存 등을 꼽고 있다. 결과에 맞춘 해석 썸으로 보여진다. 변한 사회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辰王의 優呼에 등장하는 안야국과 구야국이 여전히 강성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辰王權의 遺制가 존속하였다. 그리고 변한에는 외적 충격 요인이 없었기에 기존 질서에 변화가 없었다. 둘째, 마한이나 진한8국을 떼어주었다는 데서 유추되듯이 어떤 형태로든 마한과 진한은 중국 군현과 부딪치고 있었다. 반면 변한은 마한이나 진한과는 달리 중국 군현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결속력이 자연히 이완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4세기대 이후 마한과 진한은 외침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연맹 내의 통합 기운이 무르익어 갔다. 결국 자체 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변한 지역은 4세기 후반부터 연맹을 거의 통합한 백제와 신라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변한 지역은 통합에 필요한 환경을 상실했다. 劣勢가 뚜렷한 변한 諸國들로서는 각개 격파당하기 용이한 환경이었다. 변한으로서는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협 요인으로 인해 결속이 느슨한 연합체인 任那가 태동했다. 任那加羅는 기실 任那諸國 속의 加羅였다. 이 때 임나는 자구책으로 倭와 손잡을 수밖에 없었다. 왜로서는 신라를 통한 약탈적 철매입이 어려워지자 변한 지역을 통해 철을 확보하려고 했다.⁵⁸⁾ 이와 더불어 임나는 멀리 떨어진 고구려와 연계하기도 하였다. 변한 지역이 당면한 이 같은 외적 위협은 통합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 임나제국은 변한 이래의 느슨한 연맹의 산물이었다. 그리스 도시국가 연맹인 폴리스 체제가 오랜 기간 존속되었다. 이 역시 외침에 대응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연유한 결속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加羅가 임나 속의 諸國들을 상당 기간 주도하였기에 훗날 ‘△△伽耶’라는 이름으로 남아 6가야 연맹설의 근거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들 諸國 가운데 4개 국이 신라와 접한 동편에 몰려 있는 것도 신라의 위협에서 결성된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와 가라는 낙동강 하구인 황산강 등

58) 李道學, 『가야는 철의 왕국인가』(학연문화사, 2018), 56~69쪽 참조.

지에서 격돌하였다.

4) 加羅의 교류 확대

『가락국기』에서는 가라의 영역을 “동은 黃山江, 서남은 瀋海, 서북은 地理山, 동북은 伽耶山, 남은 나라의 끝이었다”⁵⁹⁾고 했다. 가야 문화권이 동으로는 낙동강 하류인 지금의 양산과 김해를 지나는 황산강을 접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 결과 가야 문화권의 서부는 이 범위를 훨씬 뛰어 넘었다. 서로는 전라북도 장수와 진안·임실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 일원에 이르렀다. 이를 문헌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백제와 인접해 있다는 任那4縣인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가 된다.⁶⁰⁾ 上哆唎는 猿村縣이 소재했던 여수, 下哆唎는 突山縣이 소재했던 여수 돌산읍, 娑陀는 沙平縣이었던 순천, 牟婁는 馬老縣이 소재했던 광양에 비정된다.⁶¹⁾ 여기서 上哆唎·下哆唎의 위치는 재검증이 필요하지만, 가야 문화권의 범위가 『가락국기』에서 규정한 공간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러한 가야 문화권의 범위를 떠나 加羅의 영역 범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가라의 樂師 于勒을 ‘省熱縣人’이라고 하였다.⁶²⁾ 644년에 김유신이 공격한 백제 7성 가운데 省熱城이 보인다. 이 곳은 加羅 영역에서 562년에 신라 영역이 되었지만, 642년 의자왕에게 빼앗긴 신라 서부 40여 성 가운데 한 곳으로 짐작된다. 성열현의 존재는 加羅의 王都인 高靈을 넘어서 지방이 존재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일본서기』에서도 임나의 四縣(계체 6년), 가라왕이 신라의 여중을 받아 ‘諸縣’에 散置했다는 기록이 보인다(계체 23년). 이러한 기록들은 縣制의 시행 여부를 떠나 加羅가 지방과 지역을 가진 영역국가임을 암시해 준다. 게다가 우륵에게 12곡을 짓게 한 동기로서 “諸國의 方言이 각각 달라서(f)”라고 했기 때문이다.⁶³⁾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f의 12곡에는 국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59) 『三國遺事』 권2, 紀異, 駕洛國記.

60) 『日本書紀』 권17, 繼體 6년 조.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61) 全榮來, 『百濟 南方 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正音文化社, 1985), 146쪽.

62) 『三國史記』 권32, 雜誌1, 樂, 加耶琴.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63) 李道學, 『분석고대한국사』(학연문화사, 2019), 507쪽.

것이다. 그런데 沙八兮를 陝川 草溪로 비정하고 있지만⁶⁴⁾ 타당하지 않다. 勿慧를 光陽으로 비정하고 있지만,⁶⁵⁾ 그 옛 지명은 馬老縣이었다. 馬老縣은 더욱이 任那四縣의 牟婁로 비정한 바 있다. 沙八兮는 ‘沙’가 ‘秒’의 刊誤가 아닌 이상, 草八兮縣의 草八兮와는 음운상 연결되지 않는다. 이 보다는 沙八兮는 散半奚(欽明 2년·5년)와 音似하다. 따라서 기존의 지명 비정의 맹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륵 12曲 가운데 지명 10곳은 방언이 다른 ‘諸國’에 해당됨을 알려준다. 下加羅都의 下加羅 김해는 고령 영역이 아니었다. 이와 동일하게 10곳의 諸國들은 문자 그대로 加羅 영역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들 諸國은 加羅를 軸으로 한 연맹에 속한 것은 분명하다. 이들 諸國에 대한 加羅의 연고권이나 영향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료이다.

加羅의 교류 확대는 대가야 토기의 확산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순천 운평리의 대가야계 고분군은 임나4현의 하나인 娑陀를 비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任那4縣에는 上哆唎·下哆唎가 보인다. 이곳은 『釋日本紀』에서 “哆利國·伴跛國: 兩國은 任那國의 別種이다”고 했던 그 哆利國이다. 別種은 백제를 일러 ‘夫餘別種’이라고 했던 사례를 원용할 수 있다. 즉 夫餘 분류에서 떨어져 나온 支派를 가리킨다. 백제와 인접한 ‘任那國의 別種’ 上哆唎·下哆唎는 임나의 支派임을 뜻한다. 上哆唎·下哆唎는 任那 범주에 늦게 소속된 諸國이 분명하다. 哆利國과 더불어 ‘任那國의 別種’인 伴跛國도 임나 범주에 늦게 들어 온 지역일 것이다. 반파국이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 소재했으리라는 정황이 되고도 남는다.

3. 전북가야의 대두

1) 반파국의 등장과 섬진강 수계 쟁탈전

역사서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수록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럴 필요조차 없다. 많은 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가 추려져 게재된다. 이렇듯 주관성을 지닌 기록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2차·3차 가공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았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⁶⁶⁾

64)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293쪽을 열람하라.

65) 金泰植,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서경문화사, 2014), 128쪽.

66) 이도학,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파국』 『전북문화살롱』 22(2020), 13쪽.

6세기 초기에 돌연히 등장했다가 사라진 伴跛國은, 백제와 倭 그리고 신라와 加羅의 이해까지 부딪히는 국제 분쟁 때문에 존재가 남겨졌다. 반과국을 대가야로 지목하는 견해가 정설에 가까운 통설이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은 이미 지적한 바 있기에⁶⁷⁾ 재언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근거를 덧붙여 본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加羅와 반과국이 동일한 국가라면 訓讀이 동일해야 한다. 백제의 경우 『일본서기』에서의 훈독은 ‘구다라クタラ’이다. 『일본서기』 계체 23년 조에 등장하는 ‘扶余’는 주지하듯이 백제의 異稱이다. 그러한 ‘扶余’를 『일본서기』에서 역시 ‘クタラ’로 훈독하였다. 훈독을 통해서 표기는 相異하지만 ‘백제’와 ‘부여’는 동일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일본서기』 웅략 20년 조에서 高麗와 狛를 공히 ‘고마コマ’로 훈독했다. 표기는 다르지만 兩者가 동일한 세력임을 알려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加羅와 반과국이 동일한 국가라면 훈독이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加羅는 훈독이 ‘가라카라’이지만, 반과는 ‘하해ハヘ’이다. 이로써도 加羅와 반과국은 상이한 별개의 국가로 드러난다.

伴跛國은 시점상으로는 백제 무녕왕대(501~523)인 계체 7년(513)·8년(514)·9년(515) 조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520년경에 제작된 『梁職貢圖』에 ‘叛波’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한다. 伴跛國과 叛波의 ‘跛’는 ‘절뚝발이 파’, ‘기대설 파’의 뜻과 음을 지녔고, ‘叛’은 ‘배반할’의 뜻이다. 이 가운데 叛波’에 악의적인 뜻이 크다. 이러한 반과국의 소재지는 광장군의 고고학적 발굴·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장수 지역으로 드러났다.⁶⁸⁾ 그러면 장수 일대의 백제 때 지명을 『삼국사기』에서 찾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살펴본다.⁶⁹⁾

g-1. 벽계군: 본래 백제 백이[혹은 백해]군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장계현인데, 영현은 2개이다(壁谿郡 牟百濟伯伊[一作海]郡 景德王改名 今長溪縣 領縣二).

g-2. 진안현: 본래 백제 난진아현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鎭安縣 牟百濟難珍阿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g-3. 고택현: 본래 백제 우평현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장수현이다(高澤縣 牟百濟雨坪縣 景德王改名 今長水縣).

67) 이도학,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52~74쪽.

68) 이도학,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47~82쪽.

69) 『三國史記』 권36, 地理3, 新羅, 壁谿郡.

벽계군은 장수군 長溪面, 진안현은 진안읍, 고택현은 장수군 장수읍으로 비정되고 있다. 여기서 벽계군은 백제 때 伯伊郡이었지만 伯海郡으로도 일컬었다. 伯海의 ‘伯’은 字典에서 ‘만 백’·‘길 맥’·‘우두머리 패’의 뜻과 음인데, 모두 좋은 뜻을 지녔다. 그러한 백해의 ‘伯’ 음을 비틀었다면, 악의가 담긴 글자인 ‘배반할’ ‘叛’ 자가 나올 수 있다. 백제 입장에서는 강성하여 자국 세력권에서 이탈해 간 백해 세력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설정하여 ‘叛’ 字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海’는 뜻을 취하여 ‘波’로 변경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 본다. 우선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관 등의) 네번째를 波珍滄이라고 한다. 혹은 海干이라고도 하고, 혹은 破彌干이라고도 한다”⁷⁰⁾는 기사를 주목한다. 여기서 ‘파들’로 읽는 ‘波珍’은 ‘海’의 훈독이다. ‘珍’은 ‘들’ 즉 ‘돌[石]’로도 읽었다. 가령 백제의 珍惡山縣을 石山縣으로 바꾸었다. ‘珍’과 ‘石’이 대응한다. 광주 無等山은 본래 武珍岳이라고 했다. 역시 ‘등’ 즉 ‘돌’과 ‘진’은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伯海는 ‘伯波珍’ 즉 ‘백파들’로 불리었을 수 있다고 본다. 3음절 가운데 앞의 2음절 ‘백파’를 비틀어서 ‘伴跋·叛波’로 표기했을 수 있다. 더욱이 『全韻玉篇』에서는 ‘伯’의 음가를 ‘과’로 적었다. 그렇다면 伯海의 발음은 ‘과해’이다. ‘과해’는 『일본서기』에서 伴跋의 음가인 ‘하해ハハ’와 音似하다. 『일본서기』에서 安羅는 ‘아라アラ’, 加羅는 ‘가라カラ’로 음을 적어 놓았다. 안라에 대한 ‘아라’ 음은 阿羅國의 ‘아라’와 동일하다.⁷¹⁾ 『삼국유사』에서 ‘阿羅伽耶’⁷²⁾라고 한, ‘아라’와도 음이 같다. 게다가 加羅에 대한 ‘가라’ 음은 우리가 현재 일컫는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하해’ 음가는 존중할 수 있다.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伯海의 음인 ‘과해’는, 반파 음가인 ‘하해’와 연결된다. 게다가 濁音を 붙이면 ‘ハハ’ 즉 ‘과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제의 雨述郡을 比豊郡으로 고친⁷³⁾ 것을 통해, ‘雨’와 ‘비’의 대응 관계가 확인된다. 장수군 장수읍을 가리키는 雨坪縣의 ‘雨坪’도, 훈과 음을 섞으면 ‘비평’이다. ‘비평’은 ‘반파’와 음이 서로 닮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반파국의 소재지를 장수군으로 지목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반파국의 본래 이름을 찾는 작업과 관련해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伯海’ 즉 ‘과해’와 ‘雨坪’ 즉 ‘비평’ 모두, ‘반

70)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 上. “四曰波珍滄 或云海干 或云破彌干”

71) 『三國史記』 권48, 勿稽子傳.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捺音 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72) 『三國遺事』 권1, 紀異, 五伽耶.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73) 『三國史記』 권36, 地理3, 比豊郡.

파’는 물론이고, 그 음가인 ‘하해’=‘파해’와도 연결되었다. 현재 長水郡의 ‘長水’ 지명 연원도 叛波國의 ‘波’에 닿는 듯하다.⁷⁴⁾

伴跋國은 己汶의 땅을 놓고 백제와 대립하였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에 개입한 倭는 伴跋 대신 백제편을 들어주었다. 伴跋는 백제와 같등하고 전쟁을 치렀지만 倭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패하고 말았다. 반파국이 백제와 영역을 놓고 같등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h-1. (백제가) 별도로 아뢰기를 “伴跋國이 臣의 나라 己汶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엿드려 청하오니 天恩으로 관정하여 본국에 속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계체 7년 6월 조).⁷⁵⁾

h-2. 冬 11월 辛亥朔 乙卯에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 將軍,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己奚 및 賁巴委佐, 伴跋의 旣展奚 및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恩勅을 奉宣했다. 그리고 己汶·滯沙를 백제국에 내려주었다. 이 달에 伴跋國이 戢支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己汶의 땅을 애걸하였다. 그러나 끝내 주지 않았다(계체 7년 11월 조).⁷⁶⁾

h-3. 3월에 伴跋가 子吞·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고, 麻且奚·推封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꺾박했다. 자녀를 몰아내 약탈하고, 村邑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대저 포학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업신여기니, 배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세히 기재할 수가 없었다(계체 8년 3월 조).⁷⁷⁾

h-4. 春 2월 甲戌朔 丁丑에 百濟가 使者 文貴 將軍 등이 귀국하려

74) 李道學,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2020.6.26), 16~18쪽.

75)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76)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己奚及賁巴委佐 伴跋旣展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沙賜百濟國 是月 伴跋國遣戢支 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77) 『日本書紀』 권17, 繼體 8년 조. “三月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緘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駟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고 청했다. 이에 勅하여 그 아래 物部連 <闕名> 을 팔려서 돌아가도록 보냈다[百濟本記에서는 物部至至連라고 한다]. 이 달[2월]에 沙都島에 이르러, 전하는 바를 들으니 伴跛人이 (倭에) 원한을 품고 毒을 부리는데, 강한 것을 믿고 포악한 일을 자행한 까닭에, 物部連이 수군 500을 거느리고 곧바로 帶沙江에 들어왔다. 文貴 將軍은 신라에서 돌아갔다. 夏 4월에 物部連이 帶沙江에 6일간 머물렀는데, 伴跛가 군대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들이닥쳐서 옷을 벗기고, 가진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帷幕을 모두 불질렀다. 物部連 등은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겨우 목숨만 보존하여 汶慕羅[문모라는 섬 이름이다]에 배를 대었다(계체 9년 조).⁷⁸⁾

h-5. 夏 5월에 백제가 前部 木笏不麻甲背를 보내 己汶에서 物部連 등을 맞이해 위로하며 引導해서 入國했다. 群臣이 각각 衣裳·斧鐵·帛布를 내어놓고, 國物을 보태 넣어서, 朝廷에 쌓아두고, 慰勸하게 慰問했다. 賞과 祿이 보통보다 많았다. 秋 9월에 백제가 州利即次 將軍과 그 아래인 物部連을 보내와서 己汶의 땅을 내려준 데 대해 사례했다(계체 10년 조).⁷⁹⁾

h-6. 3월에 백제왕이 下哆唎國守 穗積押山臣에게 말하기를 “대저 조공하는 사자들이 항상 섬의 돌출부를 피할 때마다[바다 가운데 섬의 굽은 물가를 말한다. 세속에서는 美佐禰라고 한다] 風波에 고달픕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온 것을 적시고 모두 파괴하여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加羅 多沙津을 臣이 조공하는 津路로 삼기를 요청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押山臣이 듣고 아뢰기를 청했다. 이 달 物部伊勢連父根과 吉士老 등을 보내 나무를 백제왕에게 내렸다. 이에 가라왕이 勅使에게 이르기를 “이 나무는 官家를 둔 이래, 臣이 조공하는

78) 『日本書紀』 권17, 繼體 9년 조. “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副物部連 <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 伴跛人懷恨御毒 恃強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興師往伐 逼脫衣裳劫掠所齋 盡燒帷幕 物部連等怖畏逃遁 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 嶋名也]”

79) 『日本書紀』 권17, 繼體 10년 조. “夏五月 百濟遣前部 木笏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廷 慰問慰勸 賞祿優節 秋九月 百濟遣州利即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나루입니다. 어찌 쉽게 바뀌서 이웃나라에 주십니까? 원래 지역을 한정해, 봉해준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勅使 父根 등이 이로 인하여 앞에서 (다사진을) 주기가 어려워, 물러나 大島로 돌아왔다. 별도로 錄史를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加羅가 신라와 結儻해 일본을 원망했다(계체 23년 조).⁸⁰⁾

반과=장수설의 중요 근거가 되는 ‘置烽候邸閣’ 등의 기사는 중국 고전 등에 의해 윤색되었을 수 있으므로, “‘置烽候邸閣’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⁸¹⁾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광개토왕릉비문』에도 중국 고전에 의해 가탁된 글귀들이 상당히 보인다.⁸²⁾ 문장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일본서기』에서도 由緒를 간직한 高雅한 문장으로 꾸며진 사례들이 등장한다. 문체는 潤色은 팩트, 즉 사실 자체를 창작했느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하다. 윤색의 사전적 의미는 “1.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며지거나 미화되다 2. 어떤 사실을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미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과장과 미화가 덧 붙여지지만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置烽候邸閣’ 기사 역시 꾸며져 품격 있게 치장한 글귀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烽候’ 설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봉화대 자체가 실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⁸³⁾

위의 인용 가운데 계체 8년 3월 조(h-3) 일부를 “伴跛 즉 대가야가 자공과 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이어지게 하고, 봉화, 척후, 저택, 누각을 설치하여 日本에 대비하였으며”⁸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여기서 烽候를 ‘봉화, 척후’로 나누어 해석했다. 그러나 烽候를 이렇게 나누어 해석하는 경우는 없다. 즉 “是昏嶺南三天 [在泗川南三十里柳管堡也後有烽候] 後峰 舉火三柄”은 “이날 어두

80) 『日本書紀』 권17, 繼體 23년 조. “春三月 百濟王謂下哆喇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謂海中嶋曲碕岸也 俗云美佐祢] 每苦風波 因茲濕所齋 全壞無色 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81) 백승옥, 『반과국 위치 재론』, 『전북지역 고대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전북사학회, 2019.11.15), 165~167쪽.

82) 李道學, 『三國時代의 儒學 政治理念에 의한 統治 分析』, 『韓國史研究』 181(2018) 8~17쪽.

83) 이도학, 『반과국 위치 재론에 대한 토론문』, 『전북지역 고대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전북사학회, 2019.11.15), 187~188쪽.

84) 金泰植,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서경문화사, 2014), 130쪽.

을 녘에 영남의 三天 [泗川 남쪽 30리에 있는 柳管堡 뒤에 烽候가 있다]의 뒷 봉에 봉화 세 자루가 올랐다”⁸⁵⁾로 해석한다. 그리고 삼봉 정도전도 “기계를 준비하고 군량을 쌓으며 烽候를 근실하게 하는 이것이 모두 둔수를 갖추기 위한 것들이다”⁸⁶⁾라고 했다. 이렇듯 烽候를 봉화와 척후로 나누어 해석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김태식은 邸閣을 ‘저택, 누각’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i-1. 鄣塞를 쌓고 烽候·邸閣을 두어 胡를 방비했다. 西羌이 두려워해 무리 二萬餘 落을 이끌고 항복했다.⁸⁷⁾

i-2. 군대를 마땅히 속히 진군시켜 南頓에 응거하게 해야 한다. 南頓에는 大邸閣이 있어 軍人들 40일분 양곡으로는 넉넉하다고 헤아려지니, 튼튼하게 성을 지키고, 곡식을 쌓아두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 있으니, 이것이 賊을 평정할 수 있는 근본이다.⁸⁸⁾

i-3. 곡식을 모아 邸閣을 만들기를 마쳤다.⁸⁹⁾

i-4. 邸閣에 나가서 곡식을 . . .⁹⁰⁾

i-5. 諸葛亮이 농사를 권장하고 講武를 하고, 木牛와 流馬를 만들고, 쌀을 운반하여 斜谷口에 모아두고, 斜谷에 있는 邸閣을 수리하였다. 백성들을 쉬게 하고 병사들도 쉬게 하였다. 3년이 지난 후에 이들을 이용했다.⁹¹⁾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邸閣은 ‘저택, 누각’의 뜻이 아니었다. 邸閣은 곡물창고의 뜻이었다. 문맥을 놓고 보더라도 왜의 침공에 대비하여 조성한 건

85) 趙慶男, 『亂中雜錄』, 戊戌 萬曆二十六年宣祖三十一年.

86) 『三峯集』 권8, 朝鮮經國典 下, 政典, 屯戍. “備器械 積資糧 謹烽候 皆所以備屯戍也”

87) 『三國志』 권15, 魏書 15, 張既傳. “築鄣塞 置烽候·邸閣以備胡 西羌恐 率衆二萬餘落降”

88) 『三國志』 권27, 王基傳. “軍宜速進據南頓 南頓有大邸閣 計足軍人四十日糧 保堅城 因積穀 先人有奪人之心 此平賊之要也”

89) 『晉書』 권2, 文皇帝. “聚穀作邸閣訖”

90) 『晉書』 권101, 載記 劉元海. “以就邸閣穀”

91) 『資治通鑑』 권72, 魏紀4, 青龍 원년 조. “諸葛亮勸農講武 作木牛 流馬 運米集斜谷口 治斜谷邸閣 息民休士 三年而 後用之”

조물이었다. 그러나 邸閣이 단순한 ‘저택, 누각’일 리는 없고, 실제 그러한 용례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2) 전북가야의 흥성과 세력권

전북가야의 존재를 알려주는 지표는 무엇일까? 가야토기가 출토되는 문화권에서 정치적 지표를 찾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전북가야 영역의 범주와 세력권의 중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포착되었다. 바로 봉화대인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110여 곳에 이르는 봉화체계는 동으로 함양과 연결되는 육십령과 치재 이남, 서로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남으로는 임실을 넘어 순창 방면과 백두대간 운봉 이남 구례, 북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과 논산 이남 및 익산 동쪽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봉화는 放射狀을 띄지만 종착지가 있게 마련이다. 봉화의 종착지는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봉화를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봉화의 운영은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被侵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⁹²⁾

물론 加羅의 거점인 고령에도 망산성(망산 봉수)·의봉산성(이부로산 봉수)·봉화산성(말응덕산 봉수)·미송산성(미송산 봉수) 안에서 봉수지가 확인되었다.⁹³⁾ 그런데 이러한 봉수지는 모두 조선시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거론할 가치가 없다. 오히려 전라북도 지역 봉화 체계 내의 세력은 단일한 정치 세력에 속했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사를 주목해 본다.

j. 임나국에서 아뢰기를 “臣의 나라 동북에는 三巴汶의 땅이 있습니다. 上巴汶·中巴汶·下巴汶입니다. 지방이 3백 리인데, 토지와 백성 또한 富饒합니다. 신라국과 더불어 서로 다투는데, 피차가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臣은 장군에게 영을 내려 이곳을 다스리게 하여 귀국의 部가 되기를 청합니다”고 하자 천황이 크게 기뻐했다.⁹⁴⁾

92)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韓國古代史研究』 63(2011), 95쪽.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 41(2012), 82~84쪽.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2017), 17쪽.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2018), 104쪽.

93) 정동락, 「고령지역 산성의 분포 현황」,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14), 179쪽.

위의 巴文은 『續日本後紀』에 따라 ‘己文’으로 바로 잡고 있다.⁹⁵⁾ 즉 上己文 · 中己文 · 下己文을 상징하는 게 가능하다. 『梁職貢圖』에도 백제 곁의 소국 가운데 ‘上己文’이 보인다. 따라서 己文이라는 지역을 3곳으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己文과 관련해 『翰苑』에서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다. 근원은 그 나라 南山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大海에 들어간다”고 하여 기문하가 보인다. 여기서 南山의 후보로는 지리산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일한 『翰苑』 백제 項에서 “또 나라 남쪽 경계에 霧五山이 있다”고 한 무오산이 지리산일 것이다.⁹⁶⁾ 따라서 기문하는 섬진강으로 지목되므로,⁹⁷⁾ 南山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장수 관내의 팔공산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지금의 섬진강 상류 · 중류에 따라 上己文 · 中己文 · 下己文의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⁹⁸⁾ 나아가 상기문은 섬진강 상류와 인접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 월산리 · 청계리 등의 中古塚 고분이 소재한 운봉고원 일원이 적합하다.⁹⁹⁾ 그리고 섬진강 수계를 따라 중기문과 하기문을 지목하는 게 가능해진다. 섬진강 하류는 帶沙江으로 불리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섬진강 하구인 하동을 가리키는 帶沙와 己汶河가 충돌하기 때문이다.¹⁰⁰⁾

위의 인용에 보이는 己文이 섬진강이라면¹⁰¹⁾ 奏를 올렸다는 ‘임나국’은 섬진강 西南편을 軸으로 한다. 그렇다면 소위 ‘任那四縣’을 순천과 여수 그리고 광양으로 지목한 견해를 주목해 본다. 이 곳을 기준으로 한다면 ‘三己汶地’는 ‘任那四縣’이 소재한 임나국의 東北이 되어 방향이 맞다. ‘任那四縣’ 가운데 여수 분읍과 돌산으로 각각 비정되는 上哆唎와 下哆唎가 보인다. 이들 哆唎國은

94)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彦香殖稻天皇[諡孝昭] 皇子 天帶彦國押人命四世孫彦國菴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彦天皇御代 任那國 奏曰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 相爭 彼此不能攝治兵戈相尋 民不聊生臣請將軍令治此地 即為貴國之部也 天皇大悅 敕 群卿 令奏應遣之人卿等奏曰 彦國菴命孫鹽垂津彦命 頭上有贅三岐如松樹”

95) 朝鮮總督府, 『朝鮮史(日本史料)』(朝鮮印刷株式會社, 1932), 5쪽.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吉川弘文館, 1982), 29쪽.

96) 이도학, 『백제 사비성시대 연구』(일지사, 2010), 246쪽.

97)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6쪽.

98) 기문국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김재홍,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 기문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전라북도 · 호남고고학회, 2020, 11.20), 77~104쪽을 참조하라.

99)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2011), 99쪽. 전상학,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가야심포지움』(전북연구원, 2020, 10.16), 74~78쪽.

100) 이용현이 기문은 섬진강 상류, 대사는 섬진강 하류로 지목했음을 알았다(이용현, 「己汶 · 帶沙의 위치와 그 위상」 『전북사학』(59, 2020, 36쪽).

101)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吉川弘文館, 1982), 29쪽.

『釋日本紀』에서 ‘任那國之別種’으로 운위하였다. 역시 반과국과 더불어 임나 제국에 늦게 포함되었음을 알려준다.

三己文의 땅은 섬진강 수계를 가리킨다. 그 영역 300리는 동의 덕유산, 서의 임실, 남의 구례, 북의 금산에 이르고 있다. 봉화 체계가 갖춰진 구간이 三己文의 땅으로 보인다. 봉화의 南限이 구례 방면이라면 섬진강 하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섬진강 하구인 多沙津(h-6)은 하동이 분명하고, 帶沙江(h-4)은 섬진강 하류로 지목할 수 있다. 江을 구간별로 나누어 일컫는 경우로는 금강이 적절하다. 즉 공주 지역을 통과하는 금강 구간을 웅천과 웅수, 부여를 통과하는 구간은 사비하 등으로 일컬었다.¹⁰²⁾ 섬진강의 경우도 상류와 중류는 기문, 하류는 대사나 다사로 불리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동일한 강에 대한 相異한 호칭을 이해할 수 없다. 동일한 강을 이와 같이 다르게 불렀던 이유는 세력권의 차이와 관련되었을 법하다.

삼기문 지역을 일러 “토지와 백성 또한 富饒합니다”는 평가는, 『택리지』 生利篇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오직 전라도의 남원과 구례, 경상도의 성주와 진주 등이다. 벼 한 말을 심어서 가장 많이 나는 곳은 … 전라도는 左道 지리산 곁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은 모두 기름지다”라는 평가와 부합한다. 그리고 “신라국과 더불어 서로 다투는데, 피차가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지를 못합니다”는 기사도 주의를 요한다. 공간적으로 볼 때 섬진강 수계권 세력의 신라와의 충돌에 회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꺾박했다. 자녀를 몰아내 약탈하고, 村邑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대저 포학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업신여기니, 배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세히 기재할 수가 없었다(h-3)”는 기사를 보자. 반과국이 신라를 급습한 사실을 서술했다. 반과국이 신라와 더불어 전쟁을 한 사실이 『일본서기』 뿐 아니라 『신찬성씨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양자 간의 전투는 해로를 통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과국은 하동의 다사진, 신라는 울산항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장수와 北接한 무주와 진안 그리고 금산에는 신라가 진출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6세기 이전에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신라고분군과 6세기 초 무주군 무주읍 대치리 신라 고분군의 존재를 제시할 수 있다.¹⁰³⁾ 그러므로 앞서 인용한 j에 적힌대로 지리상으로 반과국이 무주에 진출한 신라를 공략하는 게 훨씬 자연스

102) 李道學, 『백제도성연구』(서경문화사, 2018), 236~239쪽.

103) 광장근,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 138(2017), 53쪽.

럽다. 그렇지 않더라도 반파국은 상기문이 소재한 운봉고원을 지나 함양 방면의 신라와 충돌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토지와 백성 또한 富饒합니다”에서 백성이 부요한 경제적 이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장계분지와 운봉고원의 제철 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⁴⁾ 반파국과 신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양대 제철왕국이었던 반파국과 신라는 제철 판로와 연관지어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격돌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무주의 무풍 남쪽 7리에 소재한 大德山에서는 철이 생산되었다.¹⁰⁵⁾

지금까지의 사료 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파국의 最盛期는 백제와 倭 나아가 신라와도 대립하여 전쟁을 치렀던 513년~515년까지였다. 513년에 반파국은 백제 영역이었던 기문을 습취하였다(h-1). 514년에 반파국은 자탄과 대사에 축성하고 봉후 저각을 설치하여 倭에 대비했다(h-3). 이로 인해 반파국의 방대한 300여 리 영역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반파국이 축성한 子他國과 동일한 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⁰⁶⁾ 관련한 자타국에 관한 기사는 다음에 보인다.

k-1. 여름 4월에 安羅 次早岐 夷吞奚 · 大不孫 · 久取柔利, 加羅 上首位 古殿奚, 卒麻 早岐, 散半奚 早岐 아들, 多羅 下早岐 夷他, 斯二岐 早岐 아들, 子他 早岐 등이 任那日本府 吉備臣[厥名字]과 더불어 百濟에 가서 함께 詔書를 들었다. 百濟 聖明王이 任那 早岐 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 . . 107)

k-2. 11월에 百濟가 사신을 보내 日本府臣과 任那執事를 불러 말하기를 “천황에게 조알하기 위하여 보낸 奈率得文 · 許勢의 奈率奇麻 · 物部の 奈率奇非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왔다. 이제 日本府 臣과 任那國 執事は 마땅히 와서 勅을 듣고 함께 任那의 문제를 논의해야

104) 郭長根, 『전북 동부 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百濟文化』 43(2010).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2011).

郭長根,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百濟文化』 52(2013).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2017).

10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9, 전라도, 茂朱縣, 土産.

106)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26쪽.

107) 『日本書紀』 권19, 欽明 2년 조. “夏四月 安羅次早岐夷吞奚 · 大不孫 ·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早岐散半奚早岐兒 多羅下早岐夷他斯二岐早岐兒 子他早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厥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百濟聖明王謂任那早岐等言”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日本의 吉備臣, 安羅의 下早岐大不孫과 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의 아이, 多羅 二首位 訖乾智, 子他 早岐久 嗟早岐가 백제에 왔다. 이 때 백제 왕 聖明이 대략 詔書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 . . 108)

k-3.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 합해서 10國이다.¹⁰⁹⁾

반과국이 축성한 子呑에 대한 위치 비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子呑과 子他(흙명 2년 4월 조)의 동일 지역 여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子呑과 子他에 대한 기존 견해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의 견해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1. 子呑은 『欽明紀』 2년(541) 4월 조 등에 보이는 子他와 같다고 보인다. 자탄과 자타의 訓은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에서는 ‘고톤 코톤’, ‘고타 코타’로 하고 『釋日本紀』에서는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하였다. 그 발음에 따라 居陀 즉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 한 설과(각주 119: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27쪽), 漆吐 즉 지금의 경남 칠원이라 한 설로(각주 120: 전영래, 『南原 草村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76쪽) 견해가 나뉜다. . . . 그러므로 자탄·자타는 ‘고톤·고타’로서 발음되어 우리 지명에서의 ‘거타’와 같다고 해야 한다. . . . 따라서 자탄=자타는 진주로 보는 것이 옳다.¹¹⁰⁾

김태식은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에서는 子呑을 ‘고톤 코톤’, 子他를 ‘고타 코타’로 하고 『釋日本紀』에서는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본서기』 流布本’인 岩波本에서는 子呑을 ‘시톤 시톤’, 子他를 ‘시다 시타’로 적었다. 그러므로 김태식은 자신이 인용한 『일

108) 『日本書紀』 권19, 欽明 5년 조 “十一月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還自日本 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早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子他早岐久嗟早岐 仍赴百濟 於是 百濟王 聖明 略以詔書示曰”
 109) 『日本書紀』 권19, 欽明 23년 조.
 110) 金泰植,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서경문화사, 2014), 131쪽.

본서기』流布本の 出典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태식은 『釋日本紀』에서 子呑과 子他를 각각 ‘시톤 シトン’, ‘시타 シタ’라고 했지만, 『釋日本紀』에서는 濁音を 넣어 子呑은 ‘지돈 ジトン’ 그리고 子他는 ‘지다 シタ’로 각각 읽었다.¹¹¹⁾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태식은 『일본서기』流布本에서 子呑을 ‘고톤’, 子他를 ‘고타’로 발음한다고 하여 동일 지역으로 간주했고, 급기야 居陀로 불렀다는 晋州로 비정했다. 그렇지만 핵심 근거인 ‘고톤’이나 ‘고타’ 발음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末松保和가 『任那興亡史』에서 자탄을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고 했었지만, 정작 同書의 동일한 쪽에서는 “晋州以西, 섬진강 방면의 山地로 여겨진다”¹¹²⁾고 했다. 이렇게 되면 김태식이 반파=대가야라는 전제에서 설정한 진주 혹은 거창을 위시한 방어 체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고로 ‘지금의 경남 진주 또는 거창’이라고 한 출전은, 岩波本 『일본서기』註釋에서 “子他(子呑) : 임나의 한 國으로 경상남도 거창 또는 진주 땅이라고 한다”¹¹³⁾고 한 구절이다. 여기서 두 곳을 동일한 곳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子呑과 子他는 글자도 다를 뿐 아니라 음가도 동일하지 않다. 두 지명이 동일하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

반파국이 왜군의 침공 예상로에 축성한 것이므로 내륙의 거창이나 진주는 타당하지 않다. 섬진강 하구를 비롯한 그 연변 지역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子呑은 轉也山郡이라 불리었던 南海島와¹¹⁴⁾ 결부지을 수 있는 여지는 보인다. 즉 轉也山이 轉他山の 刊誤일 때는 더욱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반파국의 영향력은 섬진강 수계 전체를 넘어 남해안 수로까지 미쳤음을 뜻한다.

반파국은 신라를 급습하여 참혹한 타격을 안겨주었다(h-3). 그리고 반파국은 515년에 대사강에 진입한 왜군을 무자비하게 격파했다(h-4). 최성기 반파국의 강성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반파국의 영역과 세력권은 발굴과 조사를 통해 드러난 봉화 체계의 공간적 범위와 더불어, 축성한 지명 등을 통해 볼 때 광대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반파국의 강성은 기문에 대한 지배와 관련해 백제와 대결하는 국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때 반파국은 ‘珍寶’를 왜에 보냈다. 반파국은 왜를 자국편으로 당기기 위해 진귀한 문물을 보낸 것이다. 이 때 반파국은 백제의 물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낸 게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장수

111) 『釋日本紀』 권17, 秘訓2, 繼體.

『釋日本紀』 권18, 秘訓3, 欽明.

112)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127쪽.

113) 井上光貞 外 校注, 『日本書紀(三)』(岩波書店, 1994), 247쪽. 187쪽.

114) 『三國史記』 권34, 地理1, 新羅 南海郡.

삼고리 고분에서 동남 아시아에서 제작된 오색옥이 출토된 사실이 주목된다. 남원 월산리 고분에서는 중국제 청자 계수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에서는 중국 남조의 銅鏡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가야고분에서 제작한 복발형 투구와 역자형 철촉이 일본열도에서 상당수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반파국의 ‘珍寶’가 왜에 보내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¹¹⁵⁾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반파국이 확보한 ‘珍寶’의 공급처로 백제를 지목하기는 어렵다. 양국은 경쟁과 대립 관계였을 뿐 아니라, 자국이 확보한 물품의 변별력과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상호 연관성은 희박하다. 반파국이 백제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왜로 보낸다면, 과연 기존의 백제 물품을 압도할 수 있는 ‘珍寶’일 수는 없다. 대가야의 지산동 고분에서도 오키나와 이남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광조개로 제작한 국자가 출토된 바 있다. 그렇다고 이와 동일한 남방산 국자 등이 백제에서 출토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동부 지역 출토 外産 물품들은 반파국이나 임나제국의 역량과 결부지어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¹¹⁶⁾

3) 전북가야의 멸망 과정

반파국은 섬진강을 운송로로 한 강력하고도 막대한 제철산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세력이었다. 그러나 대사강 즉 섬진강 水路 하류는, 반파국의 제철산지인 운봉고원이나 백제의 谷那鐵山이 소재한 곡성에서 산출된 철의 운송로 문제와 관련해 서로 충돌했다. 때문에 반파국과 백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문 일대와 대사 강 섬진강유역 전체의 지배권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파국은 이곳을 상실하였다. 이와 연동하여 반파국은 소멸된 것으로 보였다. 대신 집요하게 西進을 거듭한 加羅가 이곳을 점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자 이제는 加羅가 다사진의 지배권을 놓고 백제와 갈등을 빚었다.

반파국의 존재는 『일본서기』에서는 515년 이후에 비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다음의 『梁職貢圖』에서 반파국의 존재가 보인다. 반파국의 마지막 존립 상황을 엿 볼 수 있다.

115) 長水 반파국의 강성을 보여주는 제철 유적과 영역 범위를 가리키는 봉화대 분포 양상, 그리고 강대한 지배층의 존속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中高塚 고분의 존재는 장수군,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장수군, 2016), 6~123쪽에 잘 집약되었다.
116) 李道學,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2020.6.26), 19쪽.

m.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양직공도』에서 백제 곁의 소국으로 반파국이 등장한 시점이다. 이 件은 『양직공도』의 제작 시점 이전에 이러한 정보가 梁에 알려진 시점 문제가 따른다. 『양직공도』에 의하면 “普通 2년(521)에 그 왕 餘隆(무녕왕)이 사신을 보내어 表를 받들어 ‘여러 차례 高麗를 격파했다’고 말했다(普通二年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고 하였다.¹¹⁷⁾ 『양직공도』에는 백제가 晉 이래로 조공하여 義熙(405~418) 중에 餘腆 즉 전지왕부터 521년 무녕왕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직공도』 백제 항의 하한은 521년이였다. 따라서 『양직공도』의 반파국은 적어도 521년까지의 존립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515년 이후 반파국은 『일본서기』에서 더 이상 비치지 않지만 존립한 것이다. 513년에 등장하는 ‘반파 기전해’와 541년에 보이는 ‘가라 고전해’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반파국이 백제에 병합되는 상황에서 가라로 넘어갔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백제는 516년에 왜 사신을 기문에서 영접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백제가 섬진강 하류인 대사를 장악하지 못한 증거일 수 있다. 그리고 반파국은 521년 이전 어느 때 백제의 ‘旁小國’으로 떨어졌다. 이 틈을 타고 加羅가 세력을 미쳐 다사진을 장악한 사실을 반영하는 기록이 h-6으로 보인다.

『양직공도』에서 반파국은 장수, 상기문은 운봉고원으로 비정되고 있다. 기문은 섬진강을 가리킨다. 섬진강을 공유하는 소국 가운데 상류에 소재한 세력을 상기문으로 일컬었던 것 같다.¹¹⁸⁾ 여기서 521년의 시점까지 장수와 운봉고원의 정치체는 백제의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독립성은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의 가야권 가운데 백제와 접한 서부 쪽이 잠식되었다. 반면 동부쪽 운봉고원의 상기문이 그 마지막 구심이었고, 보루였다. 이틈을 비집고 들어온 加羅 역시 521년 이후 어느 시점에 백제의 東漸에 따라 섬진강 하류에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백제의 ‘旁小國’이었던 반파국도 그 영역에 편제되었다. 전북

117) 이도학, 『무녕왕과 무령왕릉』(학연문화사, 2020), 270~272쪽.

118) 『향토문화 전자대전(운봉고원)』에서 “운봉분지 내에서 낙동강의 상류인 람천은 매우 완만하게 흐르지만, 섬진강의 상류인 구룡천은 매우 급경사를 이루며 협곡 사이를 흐른다”고 했다. 운봉고원은 섬진강 상류와 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운봉고원)』에서도 “운봉 고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과 북동부 지역은 지표면을 흐른 하천이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 유역에 속하지만, 남서부의 일부 지역은 섬진강 유역에 해당된다”고 했다.

가야의 역사도 백제와 加羅, 특히 加羅의 역사는 국내 문헌에는 王系 외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더욱이 양국에 앞서 멸망한 전북가야 반파국의 역사는 그 누구에게도 승계되지 못하였다.

4. 맺음말

학계의 통설인 가야 단일연맹설은 근거가 없었다. 가야 곧 加羅로 일컬어진 세력은 김해와 고령 세력에 불과했다. 11세기 경에 저술된 『가락국기』에 근거한 6가야설도 삼국기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과거 변한 연맹이 소재한 곳에는 諸國들이 지역별로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 성격의 연합체를 결성했다. 蒲上八國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와 백제 사이에 소재한 이들 세력은 가야토기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녔다. 가야토기 공동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 諸國들을 史書에서는 ‘任那諸國’이라고 하였다. 任那라는 틀 안에 加羅 등의 諸國이 소재했다. 그렇기에 ‘任那加羅’라고 한 것이다.

任那諸國의 공간적 범위는 낙동강유역과 그 서편, 그리고 남강유역을 포괄하였다. 그러한 임나제국은 가야토기의 확산을 놓고 볼 때 소백산맥 서편을 넘어 전라북도 동부 지역과 전라남도 동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동편은 소백산맥이라는 지형구로 막혀 있고, 섬진강과 금강 상류 수계를 따라 거대한 정체 세력이 태동하였다. 『신찬성씨록』에서는 이 세력의 공간적 범위가 300리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위 안에는 被侵에 대한 방어 목적의 봉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단순한 일개 소국이나 공동체 관계를 뛰어넘은 영역국가의 존재를 상정하게 한다.

봉화를 조밀하게 배치하여 침탈을 막고자 한 실체는 製鐵이었다. 『신찬성씨록』에서 “토지와 인민 역시 富饒”하다고 한 요인은 왕성한 제철산업에 기반하였다. 이러한 ‘기문의 땅’에서 반파국은 신라와 더불어 끊임없이 다투어 전쟁을 벌였다고 한다. 말할 나위없이 이는 반파국과 신라, 兩大 제철왕국 간의 제철패권 경쟁이었다. 지금의 장수 장계분지에 소재한 반파국은 금기야 경제 수로이기도 한 섬진강 하구의 다사진 항구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백제=왜와 대립하였다. 결국 무력 충돌로 변진 이 전쟁에서 반파국의 존재는 『일본서기』에 존재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반파국은 궁극적으로 백제에 패하였다. 반파국의 지배층 일부는 加羅로 넘어간 후 이제는 加羅의 입장에서 다사진에 대한 지배권을 탈환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반파국을 加羅와 동일시하는 착오

를 유발하게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 지금까지는 섬진강에 대한 호칭으로 己汶과 帶沙 즉 多沙를 동일한 강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는 금강을 구간에 따라 응수와 응천 그리고 사비하 등으로 구분하는 사례가 도움이 된다. 섬진강의 경우도 중류까지가 기문의 범주에 속하고, 하류는 대사 즉 대사강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한다면 사료 간의 모순이나 충돌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진다.

논문접수일: 2020. 11. 09. / 심사개시일: 2020. 11. 16. / 게재확정일: 2020. 11. 25.

참고문헌

사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三峯集』
- 『新增東國輿地勝覽』
- 『亂中雜錄』
- 『三國志』
- 『後漢書』
- 『宋書』
- 『南齊書』
- 『梁書』
- 『梁職貢圖』
- 『南史』
- 『晉書』
- 『通典』
- 『資治通鑑』
- 『日本書紀』
- 『新撰姓氏錄』
- 『續日本後記』
- 『釋日本紀』

연구서

- 『海東釋史 續』
- 金廷鶴, 1990,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 金哲垓, 1975, 『韓國古代國家發達史』, 한국일보사.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金泰植,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 李道學, 1995, 『백제고대국가연구』, 一志社.
- 李道學, 2018, 『백제도성연구』, 서경문화사.
- 李道學, 2019, 『분석 고대한국사』, 학연문화사.
- 李道學, 2020, 『무녕왕과 무령왕릉』, 학연문화사.
-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 白承玉, 2003, 『加耶各國史研究』, 혜안.
- 빅터 에렌버그 著 · 김진경 譯, 1991, 『그리스국가』, 민음사.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 장수근, 2016,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 全榮來, 1983, 『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井上光貞 外 校注, 1994, 『日本書紀(三)』, 岩波書店.
- 朝鮮總督府, 1932, 『朝鮮史(日本史料)』, 朝鮮印刷株式會社.
- 佐伯有清, 1982,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 吉川弘文館.
- 한국고대사학회, 2018,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

논문

- 郭長根, 2010, 「전북 동부 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百濟文化』 43권.
- 郭長根,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권.
- 郭長根, 2013,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百濟文化』 52권.
- 郭長根, 2017,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권.
- 곽장근, 2017,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 138호.
- 김재홍, 2020,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 기문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 전라북도 · 호남고고학회.
- 李道學, 1990, 「山淸의 傳仇衡王陵에 관한 一考察」, 『郷土文化』 5권.
- 李道學, 2011, 「谷那鐵山과 百濟」, 『東아시아 古代學』 25집.
- 李道學, 2019a,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호.
- 李道學, 2019b, 『가야는 철의 왕국인가』, 학연문화사.

- 李道學, 2020a, 「가야와 백제 그리고 후백제 역사 속의 長水郡」, 『장수 침령산성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학술세미나.
- 李道學, 2020b,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과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전라북도·호남고고학회.
- 白承玉, 2007, 「己汶·帶沙의 位置 比定과 6세기 前半代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군 대가야박물관.
- 백승욱, 2011,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 백승욱, 2019, 「반과국 위치 재론」, 『전북지역 고대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 전북사학회.
- 신가영, 2017, 「가야사 연구와 ‘연맹’이라는 용어」, 『學林』 40권.
- 李道學, 2003, 「加羅聯盟과 高句麗」, 『제9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광개토대왕』 김해시.
- 李道學,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 李道學, 2010, 「任那諸國內 加羅聯盟의 勢力 變遷과 對外關係」, 『白山學報』 86호.
- 李道學, 2012, 「檀君 國祖 意識과 境域 認識의 變遷--『舊三國史』와 관련하여--」, 『韓國思想史學』 40권.
- 이도학, 2019, 「반과국 위치 재론에 대한 토론문」, 『전북지역 고대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 전북사학회.
- 이도학, 2020,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과국」, 『전북문화살롱』 22권.
- 이용현, 2020, 「己汶·帶沙의 위치와 그 위상」, 『전북사학』 59호, 5-43쪽.
- 전상학, 2020,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가야심포지움』 전북연구원.
- 全榮來, 1985, 「百濟 南方 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 정동락, 2014, 「고령지역 산성의 분포 현황」,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고려군 대가야박물관.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41권.
- 조명일, 2018,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권.
- 주보돈, 2018,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제언」, 『가야사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

허윤희, 2020.10.29, 「가야 무덤이라면서… 유물은 왜 신라인가요」, 『조선일보』.

허윤희, 2020.10.28, 「가야 무덤이라는 창녕 고분, 쏟아져 나온 건 신라 장신구」,
『조선일보』.

『향토문화 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bstract>

Issues and Ban-pa Country in the Study of Gaya History

Lee, Do-hack*

The academic theory that Gaya was formed as a confederation was groundless. Only Gimhae and the Goryeong were referred to as Gaya in other words Kara. The claim that six Gaya kingdoms existed based on a historical book titled "Garakgukgi," written in the 11th century, did not reflect the situation of the time. Many countries,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Gaya earthenware community, were called Imna countries in the history books. There were many countries, such as Im Na-ra in the framework.

The spatial scope of Imna's various countries covered the Nakdonggang River basin, its west, and the Namgang River basin. Given the spread of the Gaya Confederacy, such Imna countries expanded beyond the western part of the Sobaeksan Mountains to the eastern part of Jeollabuk-do and the eastern part of Jeollanam-do. In Japan's "Shin Chansung Ssirok," the spatial range of this force reached 300 ri. Within these ranges, there was a system of beacon fire for defense purposes to prevent aggression. It makes us think of the existence of a territorial state beyond just a small country.

It was in season that the beacon fire was carefully placed to prevent erosion. "The land and people are also rich" in the book "Shin Chan-seong Ssirok" was based on the vigorous steel industry. It is said that in this 'Geumun Land', the Ban-pa country fought constantly with Silla. Needless to say, it was a hegemonic race between the two great iron-making kingdoms, the Ban-pa country and Silla. Located in the current Janggye Basin of Jangsu, Ban-pa country was at odds with Baekje and Japan over control of the Dasaeng Port at the mouth of the Seomjingang River, which is also an economic waterway. The existence of the Ban-pa country in this war, which eventually led to armed conflict, was revealed in the book "Nihon shoki" However, in this war, the Ban-pa country were ultimately defeated by Baekje. After some of the government rulers in the Ban-pa country were transferred to Kara, they now sought to regain control of the Dasa

*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port from Kara's position. However, this led to the mistake of equating the Ban-pa country with Kara.

Key Words : Gaya, Confederation, Kara, Imna, Ban-pa Country, Nihon shoki,
Dasa port

